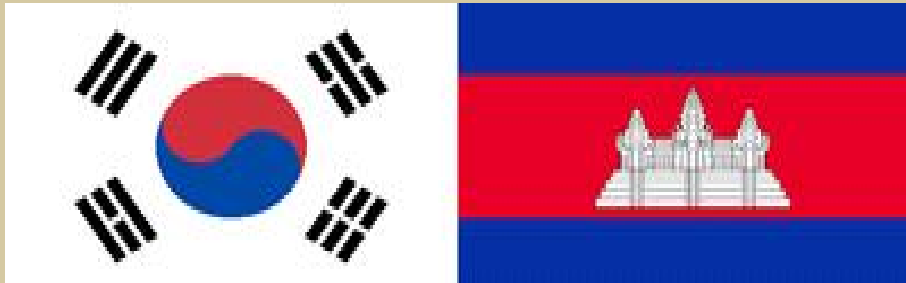


2024 Cambodia Short Missionary Training Course

(2024. 10. 03 ~ 10. 09)



Seoul Jusalang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목 차

번호	내용	페이지
1.	캄보디아 단기선교를 위한 기도문	3
2.	캄보디아 단기선교 일정표	4
3.	행동지침	5
4.	역할분담표 및 사역 분담표	6
5.	캄보디아에 대한 개관(Ⅰ)	8
6.	캄보디아에 대한 개관(Ⅱ)	9
7.	캄보디아 캄선교회 사역지	10
8.	캄보디아 지도 (교통망)	11
9.	단기선교 캄보디아 기초 언어	12
10.	캄보디아 간단한 숫자 배우기	13
11.	캄보디아 역사개관	14
12.	단기선교 이렇게	20
13.	단기선교와 영적전쟁 (Ⅰ)	21
14.	단기선교와 영적전쟁 (Ⅱ)	29
15.	캄보디아 단기선교 아침 Q.T 및 주일예배	44
16.	캄보디아에서 부를 찬양	61
17.	간단한 복음 전하기 - 한국어 전도지	68
18.	간단한 복음 전하기 - 크메르어 전도지	73

1. 캄보디아 단기선교를 위한 기도문

◎ 렘 33:2~3 “²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³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1. 주여! 선교의 모든 일정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선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2. 주여! 10월 3일부터 10월 10일 한 주간 캄보디아 단기선교 기간에 좋은 날씨와 차량, 안전을 허락 하여 주옵소서!
3. 주여! 참여한 모든 대원들이 출발에서부터 돌아올 때까지 건강하고 무사 무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 주여! 앞으로 남은 기간에 현지 언어와 찬양이 잘 준비되고 물질(선교비와 물품 구입비 그 외 현지 차량과 숙박 등)이 좋은 것으로 잘 준비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5. 주여!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잘 준비되어서 선교지에 도전을 주고 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6. 주여! 현지 선교사님들과 잘 연합해서 준비한 모든 일정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7. 주여! 현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 같은 한마음으로 뜨거운 사랑과 우정을 쌓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8. 주여! 함께 복음을 전하고 예배 드릴 때 성령님의 뜨거운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애로사항을 잘 듣고 기도와 헌신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9. 주여! 선교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비전을 발견하고 돌아온 후에도 계속해서 기도와 후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10. 주여! 하나님께서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선교지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 막 11:24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모든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2. 캄보디아 단기선교 일정표

	10월 3일 (목)	10월 24일 (금)	10월 5일 (토)	10월 6일 (일)	10월 7일 (월)	10월 8일 (화)	10월 9일 (수)
06:00		6:30 가상 및 아침큐티		6:30 가상 및 아침큐티	6:30 가상 및 아침큐티	6:30 가상 및 아침큐티	1:50 인천으로 출국
07:00		7:00 아침식사	6:30 가상 및 아침큐티	7:00 아침식사 (바이삿 푸룩)	7:00 아침식사 (꾸이띠우)	7:00 아침식사 (꾸이띠우)	
08:00		8:00 메콩강 및 프놈펜기술학교 (이계광선교사 통화 방문예약 함)	7:00 아침식사 (현지 쌀국수)	9:30 주일예배 및 세례식 참여	8:00 오싸옴으로 출발	8:00 판이옴 이미용 및 성도가정방문 및 기도 (약 4시간)	
9:00			9:00 꺼공으로 출발		11:00 오싸옴 이미용 및		
10:00					어린이전도예배 (약 2시간) *필요 물품: (품목, 수량)확정	12:00 점심식사 (현지인과 같이)	
11:00		11:30 점심식사			13:00 점심식사		
12:00		12:30 시하누크빌 출발	12:00 점심식사 (현지식)	12:00 점심식사 (현지인과 같이)			
13:00		15:30 시하누크빌 선교센터 도착	14:00 호텔 도착	14:00 태평양 양문교회 이미용 및 성도가정방문 및 기도 (약 3시간)	14:00 꺼공으로 출발	13:00 태국으로 출발	
14:00	14:30 출발 복정공항버스 정류장으로		15:00 벵까야 감동교회 이미용 및 성도가정방문 및 기도 (약 3시간)	17:00 맹그로숲 탐방 (배투어)			
15:00		16:00 시하누크빌 도시정탐 및 현지교회 탐방					
16:00	16:30 인천공항도착						
17:00							
18:00		18:00 저녁식사	18:00 저녁식사	18:00 저녁식사	18:00 저녁식사		
19:00	19:30 인천공항에서 출국 (아시아나항 공 기준)	19:00 공동체 훈련& 저녁집회	19:00 공동체 훈련& 저녁집회	19:00 공동체 훈련& 저녁집회	19:00 공동체 훈련& 저녁집회	19:00 저녁식사	
20:00		21:30 취침 (시하누크빌 양문선교센터 1박)	21:30 취침 (꺼공 MK호텔 1박)	21:30 취침 (꺼공 MK호텔 2박)	21:30 취침 (꺼공 MK호텔 3박)	20:00 자유시간	
21:00							
22:00	22:55 프놈펜도착: 픽업프놈펜 (차량예약완료) 이종보선교사님					22:00 공항으로 출발	
23:00	23:30 프놈펜 호텔 1박 (LCS호텔), 2인실*8개=16명 조식무료 1실: 4만원꼴					23:00 태국 수완나폼 공항 도착	

3. 행동지침

1. 팀원 서로를 위해서 기간 동안 서로 철저히 **희생**하며 섬긴다.
2. 문화적 우월감이 자신을 지배하지 않도록 항상 확인한다.
3. 하루의 시작은 반드시 **Q.T모임으로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감사의 제목을 나누며 **기도로 마무리**한다.
4. 팀원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한 영혼이 변화 될 수 있음을 마음에 품고 생활한다.
5. 팀원 사이의 장벽 허물어져서 기간 동안 모든 청년들과 대화하며 마음을 연다.
6. 개인행동, 즉 외출이나 외박은 **일체** 금한다.
7. 현지인들과 현지 식사 시 모든 음식을 **감사함**으로 맛있게 먹는다.
8. 자신의 건강문제와 안전에 각별히 주의한다.
9.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이나 프로그램 진행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다.
10. 팀장이나 리더들의 지시에 철저히 **순종**한다 (개인적인 감정에 좌우되지 말기)
11. 지나치게 많은 옷이나 화려한 옷은 가져가지 않는다.
12. 물건을 구입하는 시간 외에는 개인적인 물품구입은 자제한다 (필요시 목사님께 보고)
13. 선교현장은 영적 전투지이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않고 **배려**하는 팀원들이 되도록 한다.
14. 짧은 시간이지만 파송을 받은 선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캄보디아를 위해 **기도하는 단기선교사**들이 되도록 한다

+ 개인 준비물

성경, 반팔옷, 세면도구, 필기구, 모자, 개인(비상약), 운동화, 샌들, 수영복, 물티슈

< Check List >

성경		비상약	
반팔옷		운동화, 샌들	
필기도구		수영복	
모자		물티슈	
세면도구		비상금	

+ 단체 준비물

노트북, 수건, 사탕, 라면, 화장지, 물티슈, 나무젓가락, 종이컵, 지퍼백, 풍선, 물티슈, 문구류, 비상약(해열제, 진통제, 소화제, 위장약, 연고, 멀미, 물파스, 대일밴드), 기타 사역 물품

+ 선교일정표

사역지 : 캄보디아 프놈펜, 시하눅빌, 꺼꽁, 오싸옴

기간 : 2024년 10월 3일(목) ~ 10월 9일(수)

사역내용 : 현지 심방, 이미용 사역, 선교지 탐방 등

4. 역할분담표 및 사역 분담표

단기선교 조직(안) (선교위원회 주관)

선교팀장	예배, 선교, 주관	김만배
총괄	전체 관리	김상영
일정부장	일정관리, 스케줄, 인솔	김기철
예배부장	예배진행, 특송, 기도준비	최예순
예배1	예배, 특송, 기도준비	김분득
회계부장	회계, 환전	오규호
회계1	부회계, 환전	조재호
봉사부장	짐싸기, 운반, 관리	김상영
봉사1	짐싸기, 운반, 관리	김기철
봉사2	짐싸기, 운반, 관리	오규호
봉사3	짐싸기, 운반, 관리	김분득
봉사4	짐싸기, 운반, 관리	진수정
봉사5	짐싸기, 운반, 관리	정기섭
봉사6	짐싸기, 운반, 관리	유시현
조장1	6인1조장	김상영
조장2	6인2조장	오규호
사진, 광고부장	단체사진만 촬영, 관리	오규호
사진1	단체사진만 촬영, 관리	진수정

+ 각 조

조편성, 2인 1팀(숙소, 차량, 짝궁) 총인원: 이중보(포함): 17명

1조(9명) (숙소, 차량)	김만배(목)	조재호
	김분득	박진희
	김상영(1조장)	최장환
	정기섭	양해섭
2조(8명) (숙소, 차량)	이중보(선)	김기철
	진수정	유시현
	최예순(선)	이현주
	오규호(2조장)	연동호

* 숙소 및 차량 짝궁 동일하니 서로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 사역 분담표

1. 이미용사역:참여자,역할
1-1. 박진희: 이미용
1-2. 진수정: 머리감기기
1-3. 유시현: 헤어드라이
1-4. 김분득: 이미용 자리배정과 바닥청소
2. 대기자(이미용) 풍선아트
2-1. 현지 사역자중 만들 줄 아는 자
2-2. 김상영, 김기철, 조재호, 오규호: 유튜브로 숙지해서 자발적 참여
3. 심방: 현지 가정방문
3-1. 최예순: 정기섭+시간되시는분 참여
3-2. 정경희: 오규호+시간되시는분 참여
4. 사택보수:
4-1. 김상영: 참여 사역 없으신 분 참여

5. 캄보디아에 대한 개관(I)

캄보디아 왕국(Kingdom of Cambodia)

- ▶ 수 도 : 프놈펜
- ▶ 정치체제 : 입헌군주제 하의 민주주의
- ▶ 국가원수 : 노로돔 시하모니 국왕
- ▶ 행정수반 : 훈센 총리
- ▶ 독 립 일 : 1953년 11월 9일
- ▶ 국 기



■ 국민

- ▶ 인 구 : 14,453,680명
- ▶ 인 종 : 크메르족(90%), 베트남인(5%), 화교(1%), 기타 민족(4%)
 - 크메르어가 공용어이며 프랑스어와 영어도 쓰임
- ▶ 국 민 성
 - 국민의 대부분이 소승불교 신자로 삶과 종교가 밀접하게 관련됨
 - 스스로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고 크메르족의 영화 재건을 믿음



■ 국토

- ▶ 면 적 : 181,035km²
- ▶ 기 후 : 열대 몬순 기후

6. 캄보디아에 대한 개관(Ⅱ)

1. 일반

- 국명 : 캄보디아 왕국(Kingdom of Cambodia)
- 수도 : 프놈펜 (Phnom Penh : 인구 220만 명, 면적 678km²)
- 면적 : 181,040km²(한국의 1.8배, 한반도 전체의 약 80%)
- 위치 : 인도차이나 반도 동남부(베트남 · 라오스 · 태국과 접경)
- 인구 : 약 1,676만명(2022)
- 인종 : 크메르족 97%, 소수민족(베트남 · 중국 · 참족 · 고산족)
- 언어 : 크메르어(90% 이상), 프랑스어, 영어, 중국어
- 종교 : 소승 불교(95%), 기독교 및 기타(5%)
- 시차 : 우리나라보다 2시간 늦음
- 기후 : 열대몬순, 고온다습 (계절 및 지역에 따라 상이)
 - 3~5월 : 북서풍, 고온건조 (최고 기온 35~45°C)
 - 6~8월 : 남서풍, 고온다습
 - 9~11월 : 다습 (우기)
 - 12~2월 : 건조 (최저 20~최고 30°C)

2. 정치

- 정체 : 입헌군주국
국가원수는 국왕이나, 정부 수반인 총리가 실질적으로 국정운영
 - 국가원수 : 노로돔 시하모니(Norodom Sihamoni) 국왕
 - 정부 수반 : 훈센(Hun Sen) 총리(캄보디아 국민당 소속)
- 형태 : 의원내각제
- 의회 : 양원제

3. 경제(2021년 기준)

- 화폐단위: 캄보디아 리엘(KHR)
- GDP : 262억 달러
- 1인당 GDP : 1,654달러
- 실질 GDP 성장률 : 7.25%(2018), 2.2%(2021)
- 수출 : 182.6억 달러
- 수입 : 293.8억 달러
- 환율 : 1달러=4,109리엘

7. 캄보디아 캄선교회 사역지



캄선교회 선교센터	
선교방문지역	
교회 및 학교 예정지	

캄선교회 선교사 사역지

강은규 선교사 : Battambang 선교센터 및 교회,

Pursat 선교센터 및 교회,

Kampong Spueu 선교센터 및 교회,

Siem Reap 선교센터 및 교회

강문기 선교사 : Phnom Penh KOTRA 직업학교 교수

이영구 선교사 : Sihanoukville 선교센터 및 교회,

Kampot 센터 예정지

이중보 선교사 : Kaoh Kong 선교센터 및 교회,

오싸움 초등학교, 오싸움 교회

8. 캄보디아 지도 (교통망)



9. 단기선교 캄보디아 기초 언어

번 호	한 국 어	캄 보 디 아 어
1	안녕하세요	ჟმრეჟჟუ어
2	안녕히계세요	ჟმრეჟრერ
3	잘 지냈어요	ჟჟჟჟჟჟჟ
4	감사합니다	어ჟჟჟჟჟ
5	죄송합니다	ჟჟჟ
6	먼아이ჟ	ჟჟჟჟჟ
7	나는 한국에서 왔어요	크ჟჟ 목ჟჟ გოჟ
8	제 이름은 ○○○입니다	크ჟჟ ჟჟჟჟ○○○
9	저는 한국사람 입니다	크ჟჟ ჟჟჟ ჟჟჟჟჟ გოჟ
10	나는 서울에서 왔어요	크ჟჟ 목ჟჟ ჟჟჟჟჟ 서울
11	만나서 반갑습니다	ჟჟჟჟჟჟჟჟჟჟჟჟჟჟჟჟჟ
12	내 나이는 스무살 입니다	크ჟჟ აჟჟჟჟჟჟჟჟჟჟჟჟ
13	이름이 뭐예요?	ჟჟჟჟჟჟჟჟჟჟ?
14	당신 나이가 몇이죠?	ჟჟჟჟჟჟჟჟჟჟჟჟჟჟ
15	애인 있어요?	ჟჟჟჟჟჟჟჟჟჟჟჟჟჟ?
16	잘생겼네요	ჟჟჟჟ
17	좋아요	ჟჟჟჟჟ
18	똑똑해요	ჟჟჟჟჟჟჟჟჟჟჟ
19	나도 사랑해요	크ჟჟჟჟჟჟჟჟჟჟჟჟ
20	식사 했어요?	ჟჟჟჟჟჟჟჟჟჟ?
21	식사했어요	ჟჟჟჟჟჟჟჟჟჟჟჟ
22	식사 더 하세요	ჟჟჟჟჟჟჟჟჟ
23	맛있어요	ჟჟჟჟჟ
24	예수 믿으세요	ჟჟჟჟჟჟჟჟჟჟჟჟჟჟ
25	저는 예수 믿어요	크ჟჟჟჟჟჟჟჟჟჟჟჟჟჟ
26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ჟჟჟჟჟჟჟჟჟჟჟჟჟჟჟჟჟ
27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ჟჟჟჟჟჟჟჟჟჟჟჟჟჟჟჟ
28	나는 캄보디아 말을 잘합니다	크ჟჟჟჟჟჟჟჟჟჟჟჟჟჟ
29	하나 둘 셋 넷~	მოი ჟჟჟჟჟჟჟჟჟჟჟჟჟჟჟჟ
30	열 스물 서른 마흔 오십	ჟჟჟჟჟჟჟჟჟჟჟჟჟჟჟჟ

10. 캄보디아 간단한 숫자 배우기

1	- 모이	17	- 덩 뽀람 뻐
2	- 뻐	18	- 덩 뽀람 버이
3	- 버이	19	- 덩 뽀람 뿌운
4	- 무언	20	- 머 폐이
5	- 뽀람	30	- 삼 섭
6	- 뽀람 모이	40	- 싸 섭
7	- 뽀람 뻐	50	- 하 섭
8	- 뽀람 버이	60	- 혁 섭
9	- 뽀람 뿌운	70	- 찌엣 섭
10	- 덩	80	- 팔엣 섭
11	- 덩 모이	90	- 까으 섭
12	- 덩 뻐이	100	- 모이 로이
13	- 덩 버이	200	- 뻐 로이
14	- 덩 뿌운	600	- 뽀람 모이로이
15	- 덩 뽀람	1000	- 모이 뽀안
16	- 덩 뽀람 모이	10000	- 모이 먼

11. 캄보디아 역사개관

온전한 치유와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캄보디아의 비극 ‘킬링필드’

- 1)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반도에 자리한 캄보디아는 고대 유적지 앙코르와트로 대표되는 나라입니다.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고, 전세계 여행자들이 꼭 가고 싶은 여행지 중 하나입니다.
- 2) 1975년~1979년은 끔찍한 살육과 학살의 현장이었습니다. 1970년대 베트남과 전쟁, 그 뒤로 공산혁명과 내전, 급진 공산주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황폐해지고,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 3) 1975년~1979년 캄보디아의 집권세력이었던 크메르루주에 의해서 자행된 민간인들에 학살과 탄압은 세계사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으며, 캄보디아의 인구 1/4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이 기간 캄보디아는 죽음의 장(Killing Field)으로 불렸습니다.
- 4) 캄보디아는 비옥한 토지와 열대기후와 함께 대표적인 쌀 생산지이며, 지금도 캄보디아 경제의 가장 중요한 산업은 농업입니다. 캄보디아는 9세기부터 크메르 왕국이 강성해지면서 캄보디아를 넘어서 동남아시아의 강국으로 그 위세는 수백 년간 지속되었습니다.
- 5) 19세기 캄보디아는 베트남과 라오스지역을 포함한 인도차이나반도에 진출한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태국과 베트남에게 15세기~18세기까지 캄보디아는 영토를 빼앗기고, 그 힘이 쇠퇴했기 때문에 캄보디아의 존립을 위해서 식민지를 자초한 면도 있습니다.
- 6) 프랑스의 식민지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변화를 맞이합니다. 식민 지배를 받던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독립이 이어지면서 1953년 국왕이 있는 입헌군주국으로 독립을 선언했고 초대 왕으로는 ‘시아누크’가 즉위했습니다.
- 7) 시아누크는 프랑스의 지지 속에 왕위에 올랐고, 독립을 이끌어 캄보디아의 독립영웅으로 남아있습니다. 시아누크는 왕보다는 정치가로서 권력의지가 강했습니다. 그는 총리로서 권력을 장악하고 장기 집권과 함께 독재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 8) 시아누크는 공산주의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의 공산주의 무장세력 베트남 베트남의 연결로를 제공했습니다. 이 호찌민루트는 미국에게 매우 성가신 존재였습니다. 결국은 1969년부터 베트남 전쟁과 무관한 캄보디아 동부지역을 폭격하기 시작했습니다.

- 9) 캄보디아는 초토화되었고,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민심의 이반을 불러왔으며 시아누크의 권력과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부의 반발과 함께 군부의 쿠데타로 연결되어 시아누크가 해외순방을 하는 사이에 론놀 장군이 이끄는 군부세력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합니다.
- 10) 론놀은 친미의 성향으로 기울었고, 미국은 베트남으로부터 캄보디아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무려 수만 번에 걸쳐 캄보디아를 공격합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토는 파괴되고, 산업기반인 농업이 붕괴되고, 론놀 정부는 미국의 지원으로 호의호식했습니다.
- 11) 이런 상황 속에서 극단적인 성향의 공산주의 단체의 세력이 이어졌고, 그중에서 극단적 성향의 크메르루즈가 가장 큰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이들은 「폴 포트」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무장투쟁을 전개했고, 결정적으로 해외 망명 중인 시아누크 왕의 지지를 얻게 됩니다.
- 12) 시아누크는 빼앗긴 왕권을 되찾기 위해 군대가 필요했고, 크메르루주는 그들의 정당성을 얻기 위한 권위가 필요했습니다. 크메르루즈의 세력은 급속히 팽창합니다. 캄보디아 국민들도 이들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므로 크메르루주와 론놀의 군사정권 사이에 치열한 내전이 전개되었습니다.
- 13) 외부의 지원도 내전을 더 키웠습니다. 공산주의 진영은 크메르루주에, 민주주의 진영은 론놀 정권을 지원했습니다. 두 정치 세력 간의 치열한 내전은 수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되었고, 특히, 양 진영은 수백만 개의 지뢰를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며 맞섰습니다. 캄보디아는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지뢰가 매설된 나라가 됐습니다. 그 지뢰들은 아무 계획도 없이 뿌려지듯 살포된 탓에 사후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14)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지뢰에 의한 민간이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고, 캄보디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뢰 피해자가 발생하는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공급된 지뢰, 특히, 손과 발에 장애를 불러오는 대인 지뢰의 피해는 지금도 많은 이들의 장애인으로 만들고 있고 현재진행형의 비극으로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 15) 치열했던 내전은 베트남 전쟁의 종전과 미국의 철수로 인해 크메르루주 쪽으로 힘이 균형이 급격히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론놀 정권은 붕괴됐으며, 론놀은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폴 포트가 이끄는 크메르루주는 캄보디아를 장악하고 새로운 정권을 세웠습니다.
- 16) 급진적인 공산주의 이상향 건설이라는 목표에 빠진 크메르루주의 시도가 폴 포트의 그릇된 가치관과 역사관, 편협함, 그리고 잔혹함은 캄보디아 국민들을 더 큰 비극 속으로 빠져들게 했습니다.

- 17) 폴 포트는 프랑스 식민지 시절 캄보디아의 상류층에 속한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냈으며 경제적으로 풍족했고 집안이 왕족과 연결된 탓에 캄보디아에서는 쉽게 할 수 없는 고등교육을 받았고, 프랑스 유학길에도 오를 수 있었습니다.
- 18) 기득권 중의 기득권, 상위 몇 %의 부를 가진 집안의 아들이었던 폴 포트는 프랑스 유학을 통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프랑스 유학 중 공산주의 사상을 접하고 이에 심취했으며, 그는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의 마오쩌둥 두 독재자의 열렬한 신봉자가 됐습니다. 이는 극단적 공산주의 사상을 캄보디아에 도입하는 시도로 이어졌습니다.
- 19) 이후 캄보디아로 돌아온 폴 포트는 공산주의 무장세력인 크메르루주의 지도자가 됐고 내전 승리 후 최고 권력자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내전에서 승리한 후 집권한 폴 포트 정권은 당장 긴 전쟁으로 파괴된 나라를 재건하고 국민들을 빈곤에서 구해야 하는 과제가 있었으며 특히 식량 부족 문제 해결이 시급했습니다. 폴 포트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강력한 농업중심의 경제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집단 농장 체제와 계획경제로 대표되는 공산주의 경제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 20) 폴 포트의 공산화 정책은 거침이 없었으며, 1975년 캄보디아 역사 원년을 선언한 폴 포트는 기존의 전통과 역사를 모두 새롭게 하려 도전합니다. 국가의 강력한 대국민 통제를 실시했고, 국민들은 동일한 의복과 두발, 생활을 강요받았으며 화폐는 철폐하고 중앙은행도 사라졌습니다. 나라 전반에 자본주의 요소를 모두 제거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삶은 극단적 평등으로 국민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어갔습니다.
- 21) 폴 포트는 도시 지역민들을 강제 이주시켜 농촌 지역의 집단 농장 등으로 배치했고, 수도 프놈펜을 포함한 캄보디아 도시인들은 하루아침에 터전을 잃고 강제 이주를 당해야 했습니다. 한때 동남아시아의 파리라 불리던 수도 프놈펜은 무서운 유행도시로 변해갔습니다.
- 22) 폴 포트는 도시인들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도시인들의 반공산주의적 성향이 강하게 자본주의에 물든 이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농촌 지역 국민들은 일반 인민, 도시지역 국민들은 신인민으로 구분했고, 신인민들은 교화의 대상이고 미약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도시인들의 강제 위주로 폴 포트의 왜곡된 생각이 불러온 결과였습니다.
- 23) 이에 그치지 않고 폴 포트와 크메르루주 정권은 캄보디아의 공산화를 더 촉진하려 했으며, 그들은 국민들의 생각 자체를 개조하려 도전합니다. 전통적인 가족관계를 부정하고 어린이들을 어려서부터 부모에게서 분리하고 교육했으며, 아이들은 극단적 공산주의 사상을 교육받아 폴 포트 정권의 전사로 키워져서 어린 나이에 총을 들고 집단 농장의 관리자로서 활용되었습니다. 감정과 감수성, 공감 능력을 잃은 아이들은 마치 로봇과 같은 존재로 전략했습니다.

24)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폴 포트 정권은 자본주의의 물이 들었다고 판단되는 이들에 대한 숙청과 학살을 본격화했으며 폴 포트 정권은 지식인들이 정권을 흔들 수 있는 위험 세력으로 여기고 혐오했습니다. 그런 부류에 속하는 학자, 교육자, 공무원, 교사, 교인 등이 숙청되고 학살되었고, 심지어 손에 군살 등 노동의 흔적이 없는 자, 안경을 쓰는 자, 교복 입은 자, 글을 아는 자들도 학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많은 교회를 파괴 시키고, 수많은 성도들이 죽어갔습니다. 이같은 두려움 속에 캄보디아 국민들은 살기 위해 교육을 받았던 사실을 숨기고 숨죽이며 살아야 했고, 폴 포트 정권은 심지어 체육인과 문화, 예술 종사자들도 학살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에 폴 포트 정권 기간 캄보디아는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긴 암흑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25) 폴 포트를 포함해 정권의 실세들은 대부분 상류층 출신으로 고등교육을 받았고 유학파들이 대부분이었으며 그들 기준이라면 가장 먼저 처단되어야 할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지식인 등에 대한 학살이 얼마나 명분 없고 광기에 휩싸인 무모한 행동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6) 폴 포트 정권의 만행은 그뿐만이 아니었으며, 그들은 전국 곳곳에 강제 수용소를 세웠고 숙청 대상자들을 수용했습니다. 그 수용소의 수감자들은 첩자임을 자백하라는 강요와 함께 극심한 가혹 행위와 고문에 시달렸습니다. 상당수는 고문 과정에서 사망했고, 고통에 못 이겨 거짓 자백을 한 이들은 곧바로 처형되었습니다. 그곳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있는 강제 수용소였으며, 그렇게 사망한 이들은 수용소 또는 인근에 암매장되었습니다.

27) 이런 잔혹한 공포 정치를 자행한 폴 포트 정권은 그들의 목표로 했던 중농주의 경제정책도 실패하며 캄보디아의 경제를 더 후퇴시켰으며 폴 포트 정권은 집단 농장 운영을 통해 식량 생산을 수 배로 늘리길 기대했지만,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정부패와 무사안일, 계획경제의 한계성으로 오히려 농업생산이 더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28) 누구나 함께 잘 사는 평등한 공산주의 사회는 모두가 빈곤하고 굶주려야 하고 특권층들만 행복한 사회로 변질되었고, 폴 포트 정권은 이런 상황 속에서 강력한 통제와 대규모 학살 등의 힘으로 불만을 잠재우고 정권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런 폴 포트 정권의 행태는 자국 내는 물론이고 같은 공산주의 진영에서도 큰 반발을 불러왔으며 폴 포트에 대해서는 히틀러, 스탈린과 함께 최악의 학살자라는 불명예가 더해졌습니다. 결국, 그들의 권력도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폴 포트 정권의 학살은 캄보디아인들을 넘어 인근 국가 국민들까지 그 범위가 확대됐고, 이는 인근 베트남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29) 폴 포트 정권은 자국 내 베트남인들의 학살에 이어 국경지역 베트남인들의 학살까지 자행하면서 이미 수백 년 전 베트남이 차지했던 과거 캄보디아 남부지역 영토의 탈환을 천명하며 베트남과 적대적인 대립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30) 이는 베트남을 자극했고, 1978년 베트남은 대규모 군대를 일으켜 캄보디아를 침공합니다. 베트남군은 캄보디아 내 반 크메르루주 세력과 연합해 폴 포트 정권을 압박합니다. 베트남전 등을 통해 정예화된 베트남군을 폴 포트의 캄보디아군이 당해낼 수 없었으며 1979년 폴 포트 정권이 붕괴되고 친 베트남 정권이 수립되었습니다. 폴 포트가 이끄는 크메르루주 세력은 이후 태국 국경지대로 이동해 게릴라전을 하며 저항했습니다.

31) 여기서 또 다른 변수가 발생했는데 베트남과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미국이 크메르루주 세력을 지원합니다. 또한, 오래전부터 유대 관계를 이어 온 중국도 그 지원에 합세했고, 미국과 중국의 지원 속에 크메르루주는 국제사회에서 캄보디아의 합법적 정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32) 이에 베트남은 크메르 루주 정권이 자행한 학살과 반인권적인 범죄들을 국제사회에 알리며 여론전을 전개했고, 베트남은 캄보디아에 산재한 학살자들을 암매장 지역을 발굴하고 강제 수용소의 실상을 공개합니다. 이는 외신을 통해 비로소 폴 포트 정권의 만행이 제대로 알려질 수 있었습니다.

33) 하지만 크메르루주 세력은 여전히 그 힘을 유지했고 무장 투쟁을 지속했고, 베트남이 철군하고 1991년 파리 평화조약을 통해 내전 종식의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유엔 주도하에 새로운 정부 구성과 총선이 이루어졌지만, 크메르루주는 이에 참여하지 않고 무장 투쟁을 이어갔다고 이에 미국도 크메르루주를 더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34) 드디어 1993년 총선 후 캄보디아에는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입헌군주제의 정치 시스템이 다시 가동됐고 해외 망명 중이었던 시아누크 국왕도 복귀합니다. 크메르루주의 존립 기반이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35) 이후 크메르루주 세력 상당수는 저항을 멈추고 투항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저항하던 세력들도 긴 전쟁에 지쳐 분열 양상을 보였다고 마지막까지 저항하던 폴 포트는 부하들에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폴 포트는 고향인 파일린(Pailin)에서 추종자로 살았고, 그는 수감 되지 않았으며 연금 상태에서 1998년 4월 돌연 사망했습니다. 그의 나이 72세였으며 폴 포트의 시신은 각종 쓰레기와 함께 소각되어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후 크메르루주 조직은 와해 되고 소멸되었습니다.

36) 최악의 학살자 독재자였던 폴 포트의 허무한 최후였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죄를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만 했고, 수백만 명의 캄보디아인들이 사망하고 고통 속에 살도록 한 악행을 저지른 폴 포트는 쓸쓸히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37) 캄보디아는 이런 비극적인 역사를 겪었지만, 여전히 최빈국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다수의 국민들의 문맹일 정도로 사회 시스템 자체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전쟁의 후유증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으며, 현재 정권은 1985년부터 집권한 훈센 총리가 장기 집권하고 있고 폴 포트와 다른 온건파였지만, 크메르루주 출신들도 다수 정권 포함되고 있는 기득권 세력입니다. 사회 민주화는 더디고 부정부패가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으며, 지금도 군부세력이 많은 땅과 재산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38) 캄보디아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근의 베트남과 태국이 급격한 산업화과정을 거치며 성장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아직은 캄보디아가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기에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북한과 오래전 수교했고, (고)김일성과 시아누크는 형제 관계를 맺었으며 프놈펜에는 “김일성 거리”가 있을 정도입니다.

39) '킬링필드'의 비극은 한 나라의 리더가 잘못된 공산주의 사상과 리더십을 발휘하면 그 나라가 얼마가 불행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는 캄보디아의 비극이 아니었으며, 현대사 속에서 나치 독일의 만행이 있었고 유고 내전의 인종청소도 있었습니다. 가깝게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민간인에 대한 학살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40) 폴 포트 정권의 만행은 한때 공산주의의 잔혹함을 교육하는 데 중요한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그들이 만행을 제대로 알린 게 베트남이었고 폴 포트 크메르루주가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고 정권의 재탈환을 노렸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인권은 언제든 무시될 수 있다는 냉혹하고 잔인한 국제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 준 게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라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 같은 캄보디아 역사 속에서 그 당시 인구의 1/4이 죽었다면, 몇 만명이 죽었을 까요? 적게는 100만 이상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200만명 이상으로 추정합니다.

특별히 캄보디아의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던 많은 선교사들과 크리스찬 지도자와 성도들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캄보디아는 1975~1979년에 대부분의 지식인이 죽었고,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피를 뿌리며 복음을 전한 나라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역사적 배경과 그 당위성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인 복음을 고통이 서려 있는 가정과 공산주의 사상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 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시길 바랍니다.

◎ 딤후 4:1~2 “하나님 앞과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12. 단기선교 이렇게

1.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며 하나님 마음으로 선교지를 바라보기
2. 캄보디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곳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일하심 보기를 위해 기도
3. 내 삶에 살아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내 신앙을 점검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
4. 선교지의 문화, 환경, 언어를 이해하고 준비하며 캄보디아를 사랑하는 마음 갖기
5. 단기선교를 통해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기도 제목을 공유하며 지속적으로 기도로 동역하기

* 선교지의 어려운 점

1. 환경적인 면

날씨(건기, 우기)/ 병(뎡기병, 우울증, 염증, 병원 부족)/ 모기, 개미, 뱀

2. 사역적인 면

A. 성도 및 주일학교 학생들의 이사

-> 1-2년 열심히 교회를 섬기다가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이사

B. 종교 다원주의

-> 정부 주도(종교청)하에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고 국민들에게 선포

C. 청년들의 교회이탈

-> 청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일자리를 찾아 교회를 떠남.

D. 중국 자본과 문화가 급속하게 캄보디아로 들어와 캄보디아를 잠식

-> 카지노,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E. 장례문화

-> 절에서 화장하고 절에 매장하는 문화, 매년 명절 절에 부모님 묘소를 찾아가는 문화

* 사역

1. 꺼꽁캄 선교센터와 지교회 연합사역

태평양문교회(태양전도사, 시나선생님)/ 판이음금발양문교회, 새땅교회(반니목사)/
병꺼야감동교회(여호수아 목사)/ 오싸옴교회

2. 주중 어린이 방과 후 교실(성경 색칠 공부, 찬양, 말씀 쓰기 및 암송)

3. 화, 목 - 성도가정 심방예배

수요일 - 전도(연합)

금요일 - 동네 심방

토요일 - 사역자 연합기도모임

4. 센터와 지교회 연합 집회

13. 단기선교와 영적전쟁 (I)

I. 사단의 전략을 파악하라

- 1)
- 2)
- 3)

II. 영적전쟁의 중요성을 파악하라

- 1) 3)
- 2) 4)

III. 사단의 공격영역과 그 목적을 알라

1) 공격영역들

- ①
 - ②
 - ③
 - ④
- #### 2) 구약에서의 구체적인 실 例
- #### 3) 구체적인 사단의 공격영역들
- ①
 - ②
 - ③
 - ④

IV. 영적전쟁에서 승리의 작전을 전개하라

- | | |
|---|---|
| ① | ⑥ |
| ② | ⑦ |
| ③ | ⑧ |
| ④ | ⑨ |
| ⑤ | ⑩ |

V. 영적 전쟁의 관계들

VI.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참고문헌 소개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전쟁을 해야 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싸움을 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선한 싸움의 삶이요” 영적 전쟁을 치루는 삶이요.” “계속 전투해야 하는 치열한 격전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 때까지는 영적 전쟁의 비상 계엄령 상태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전쟁은 사람과 사람끼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나라와 나라끼리의 싸움도 아닙니다.

*엡6:12: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단의 세력을 너무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의 힘은 우리들보다 훨씬 강하고, 대단히 지혜롭고, 대단한 무기, 최고의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1. 사단의 전략을 파악하라.

1) 간교하게 시험합니다.()

- 성도들의 ()을 이용하여 시험하고 (창3:1-8, 마16:21-23)
- 환경여건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시험하고(눅22:1-6)
- 거짓말로 유혹하고 간교하게 시험하고(창3:4)

2) 공포로써 시험합니다.()

- 물과 불에 던져서 공포를 주며 시험하고(마17:16)
- 환난 중에 던져서 ()을 주며 시험하고(대하26:16-23)
- 사망권세를 가지고 ()을 주며 시험하고(계2:13)

3) 신령한 듯 시험합니다.()

- ()을 이용하여 말씀으로 시험하고(마4:6)
- ()을 이용하여 교묘하게 시험하고(대하26:16-23)
- 오묘하고 신비하게 고단수로 시험합니다.(계2:24)

사단의 전략은 성도들을 분주하게 만들고, 우선순위를 혼동케 만들며, 관심을 영적 인데서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며, 동시에 영적인 일을 포기하게 만들며 결국은 성경적인 방법을 쓰지 않도록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II. 영적전쟁(Spiritual Warfare)의 중요성을 파악하라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듯이 사단도 존재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어둠의 세력과 대결이 벌어지는 전쟁터이며, 찬양하는 사람들은 전투요원들입니다.

사단의 세력과 능력대결(Power encounter)을 해야 하는데 이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정의를 Timothy Kemp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 종류의 어둠의 세력들을 노출 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은 한분 밖에 계시지 않으며, 우리가 그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케 하는 것이다.”

John Wimber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갈등을 영적 전쟁 혹은 능력 대결이라고 한다.”

로잔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반드시 능력대결을 통해서 승리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사람들은 한때 그들의 신에게 혹은 우상에게 충성을 하다가 그들이 구원을 통해서 악의 영으로부터,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해방을 받게 된다. 이것을 가리켜 영적 전쟁이라고 한다.”

1) 영적전쟁은 세계 ()에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 2차 세계대전 후 세계의 영적 물결을 보면?

1950년대/ _____
1960년대/ _____
1970년대/ _____
1980년대/ _____
1990년대/ _____

2) 영적전쟁은 ()께서 강조하신 내용입니다.

*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싸우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십니다.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마치 성경이 전쟁의 책이요, 하나님이 전쟁의 하나님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영적 전쟁을 강조합니다.

*고후10:3-5: _____

*엡6:10: _____

3)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영적 전쟁에 돌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관계없이 영적 싸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딤후2:3: _____

4) 영적 ()이나, 선교지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영적 대결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사단은 종교적 행위의 위험을 느끼지 않습니다. 사단은 승리하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때 위협받게 되는 것입니다.

III. 사단의 공격영역과 그 목적을 알라

1) 공격영역들

- ① 사단은 인간의 ()을 집요하게 공격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혼동하게 만들고, 죄를 짓고, 좌절과 절망감을 심어주는 일을 계속합니다.
- ② 사단은 인간의 ()을 공격하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 ③ 사단은 인간의 ()를 부추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 같이 교만하게 만듭니다. 자만심, 허영심을 집어넣는 일을 계속합니다.
- ④ 사단은 인간의 ()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죄 용서함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죄책감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도록 만듭니다.

사단은 우리들의 작은 실수를 확대시키고 참소합니다. 그래서 거룩성을 잃게 만들고 성결하지 못하게 하고, 심적으로 계속 불안과 갈등을 겪으면서 살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작하고 자극합니다.

2) 계약에서의 구체적인 실재 例

사람 구분	하와	옘	다윗	여호수아	비고
사탄의 표적					
사탄의 무기	거짓말	고통	교만	고소(참소)	
사탄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당신의 방어책					

3) 구체적인 사단의 공격영역들

- ① 육체적 영역에서의 공격(마4:1-11)
- ② 정신적, 정서적 영역에서의 공격
- ③ 사회적 관계에서의 공격
- ④ 영적 영역에서의 공격

사단이 공격하는 그 근거들을 보면

- 조상의 죄 ()
- 숨겨진 개인적인 죄 ()
- 이전의 충격
- 마술을 행하는 자들의 저주
-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자들의 심적 상태를 보면서 공격
- 쓴 마음의 뿌리를 계속 유지할 때 ()
- 하나님의 섭리도 있음.

IV. 영적전쟁에서 승리의 작전을 전개하라

영적전쟁은

-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시작하는 전쟁
- 하나님께 속한 전쟁
- 꼭 준비해야 이길 수 있는 전쟁
- 그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 역사하는 영입니다.
- 성서적인 진리와 확고한 믿음, 특히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성령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믿고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불신자들을 그들의 통치하에 장악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속임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구원이 길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입니다.

- 1) 어둠의 세력을 파악하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라.
(단1:13,20, 골2:5, 요12:31)
- 2) 주안에 있어야 한다(약4:7-8).
- 3) 전투적인 ()에 들어가라.
- 4) 내부 교란 작전에 주의하라.
- 5) 중보기도 특공대를 조직하라.
- 6) 말씀에 근거한 기도과 특히 (), 서로간의 중보기도를 하며 찬양을 통해서 적극적인 승리를 선포하라.
- 7) 비난과 핍박을 잘 소화하라.
- 8) 성령 충만하라.(엡5:15-21, 눅4:18-19, 행10:38)
- 9) 서로 간에 ()이 중요하다. 영적 전쟁에서의 제1원칙이 성령과의 연합이라면, 제2의 원칙은 ()들과의 연합입니다.
- 10) 최선의 ()로 대적하라 (엡6:11-20)

영적 전쟁의 관계들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

그리스도 "—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뛰어나게 하시고"

산 자 들 "—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천사들의 영역

사람들과 사물들의 영역

성경은 믿음 위에 있음 (창 1:1-2)

3인 1체

대적 (엡 6:12)

권위 (눅 10:19)

우호 (마 4:11)

공격 (벧전 3:1)

수업

(골 2:15)

신자들

불신자들

사단의 지배를 받는 정도

외적		내적	
유혹, 다툼	사람의 기능에 영향을 주는 다툼	사람의 생활을 '붙들고' 있거나 '근거지'를 마련함	마귀가 지배함
유혹	눌림	내주	지배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차원에서 관계됨

불신자들에게만

Ⅵ.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사탄의 공격 형태	하나님의 전신갑주	비 고
가치판단을 흐리게, 진리를 부인	진리의 허리띠	
죄의 유혹과 고소, 죄의식	의의 호심경	
불안정한 것, 불안, 초조	평안의 복음의 신	
의심, 내가 과연?	구원의 투구	
불신앙, 우상 숭배	믿음의 방패	
유혹과 억압	성령의 검	
두려움, 공포	담대함	

* 영적 전쟁은 작전 지시를 잘 받아야 합니다.

1) 공격용 무기

- 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 ② 하나님의 말씀
- ③ 주님의 의
- ④ 성령의 은사

2) 방어용 무기

- ① _____
- ② _____
- ③ _____
- ④ _____

참고 문헌

- * Sothard, Samuel 황영철역, 마귀론과 정신질환 - 생명의 말씀사
- * Brooks, Thomas 정중은역, 사탄의 공격을 이기는 대적방법 - 나침반사
- * Bubeck, Maaark 유화자역, 사탄을 대적하라 - 생명의 말씀사
- * Anderson, Neil T, Walking through the Darkness. Here's life, 1991
- * 티모시와너, 영적전투 - 죠이선교회
- * 찰스크래프트, 능력 그리스도교 - 나단
- * 딜셔만 영적전쟁 - 예수전도단
- * 존 윈버 능력전도 - 나단
- * 존 두우슨 하나님을 위하여 도시를 점령하라 - 예수전도단

14. 단기선교와 영적전쟁 (Ⅱ)

I. 마귀의 실체를 알고 계신가요?

1) 생각하면서

2) 마귀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who)

(1) 교만해서 타락한 ()입니다.

①

⑤

②

⑥

③

⑦

④

⑧

3) 영적 전쟁이란 무엇입니까?(what)

(1)

(2)

II. 영적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장소는?

(1) 생각하면서

(2) 영적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장소는?(where)

(1)

(2)

(3)

3) 영적 전쟁이란 무엇입니까?(how)

II. 영적전쟁의 중요성을 파악하라

1) 생각하면서

2) 영적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장소는?(where)

(1)

(2)

(3)

3) 영적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how)

(1)

(5)

(2)

(6)

(3)

(7)

(4)

(8)

III. 적용(application)

1)

2)

3)

I. 마귀의 실체를 알고 계신가요?

1) 생각하면서

위대한 독일제국 건설을 위해 2차 세계 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로 인해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인류역사상 가장 비참한 전쟁이었습니다. 전쟁 초기엔, 유럽 대륙을 통일하고 궁극적으로 세계를 지배하려는 히틀러의 야망이 이루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으로 전세계는 역전, 마침내 1945년 4월 25일 연합군은 히틀러의 총리공관이 있는 베를린을 완전 포위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닷새 뒤, 히틀러는 총리공관 지하 벙커에서 자신의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의 정부였던 에바브라운은 음독으로 자결했고, 히틀러 자신은 권총으로 자신의 생을 스스로 마감했습니다.

당시 소련군이 그곳에서 800미터도 채 되지 않는 지점까지 진격해 있었기에, 히틀러의 부관들이 두 사람의 시체를 급히 잔디밭 구덩이로 옮긴 뒤 담요를 덮고 그 위에 석유를 부어 완전히 태워 버렸습니다. 히틀러는 묘비도 묘소도 없이, 그렇게 허망하게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지하벙커 밀실의 크기는 15제곱미터, 다시 말해 4.5평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세계 정복의 야망을 불태우며 수천만 명의 살상을 아랑곳 않았던 히틀러의 인생은 4.5평에 불과한, 그것도 지하밀실에서 56세를 일기로 끝났고, 그 즉각 형체도 없이 완전 소각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웃기고 자빠진, 불쌍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최후를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했었다면 것처럼 어처구니없는 웃기고 자빠진 인생을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히틀러와는 정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는 '김영갑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도무악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 올해 54세의 사진작가 김영갑씨는 12년째 루게릭 병을 앓고 있습니다.

루게릭 병이란 온몸으로 근육이 마비되어 마치 쫓놈처럼 없어져 버리는 불치병입니다. 그로 인해 70킬로그램이었던 그의 체중은 40킬로그램으로 감소하였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조차 없는 형편입니다.

매일매일 죽어가는 자신의 근육을 통해 그는 매순간 자신의 죽음과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굴하지 않고 제주도의 신비스런 자연 풍경을 카메라에 담기를 계속, 이번에 대규모 전시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매일 죽음과 마주하고 있다. 나에게는 내일의 보장이 없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오늘을 치열하게 살아간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내 몸은 통나무처럼 굳어 가고 있지만, 마음은 새털처럼 가벼워 제주도 곳곳을 누비고 다닌다.”

“죽음을 대면하고서야 자연의 이치와 사람이 비로소 보인다.”

“평화는 외로움에서 온다. 어쩔 수 없이 명상을 즐겨야 하는 내 삶은 가엽이 평온하다. 그래서 이 평온을 안겨 준 루게릭 병에게도 감사한다.”

루게릭 병으로 인해 그의 몸결은 볼품없이 오그라졌지만, 그는 자연과 사람을 사랑하면서 누구보다 진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매일 자신의 죽음과 직면하며 살아가는 그는 웃기고 자빠질 삶으로 생명을 낭비하기에는 남아있는 생명이 너무나도 소중한을, 1초 1초가 곧 자신의 생명임을 온몸으로 터득하였기 때문입니다.

죽음도 생명의 의미도 알지 못해 웃기고 자빠졌던 히틀러에 비하면, 비록 김용갑 씨에겐 권력도, 군대도, 육체의 건강도 없지만 죽음을 알기에 생명 또한 바르게 살 줄 아는 그야말로 진정한 생명의 거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시회는 2005년 3월 23일부터 4월 5일까지 열렸으며, 그로부터 50여일 후에 사망하였다.)

*요8:44

2) 마귀의 실체를 알고 계신가요?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것은 돈이나 건강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도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악한 영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실제적이고 ()인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지만,()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아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마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1) 교만해서 타락한()입니다.

겔28장 12~17절은 두로왕에 애가인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12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13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음이여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14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15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16네 무역이 많으므로 네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 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17네가 아름다우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우므로 네 지혜를 더럽혔음이여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① 12절에서 그는 어떤 자입니까?

② 13절에서 그는 언제부터 있는 자입니까?

③ 14절에 그는 본래 누구와 하나였습니까?

④ 결국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침내 불의가 드러나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났으며 땅에 던져져 열왕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사 14장 12~17절을 읽고 답을 써볼까요?

“12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3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16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17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⑤ 12절에 나오는 별의 이름은?

⑥ 사탄은 어떤 마음을 품었습니까?

⑦ 결국 하나님께서 사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음부, 곧 구덩이에 떨어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⑧ 사탄은 어떤 일을 하는 자입니까?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는 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천사장은 셋인데, 미가엘(단10:13), 가브리엘(눅1:18-19), 루시퍼(사14:12, 계명성)입니다.

미가엘은()하는 천사장이요,
가브리엘은()하는 천사장이요,
루시퍼는()을 드리는 천사장이었습니다.

그 중 루시퍼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을 가지고 있다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공중에서 쫓겨났습니다. 성경에서는 타락한 루시퍼를()이라고 말합니다.

2) ()자입니다.

계12:7-9 "7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8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 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2)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① 하늘의 전쟁에서 미가엘 천사장이 땅으로 쫓아낸 무리는 누구입니까?

② 그 우두머리를 가리켜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9절 참고, 계20:2)

③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3) ()입니다.

계 12:10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마귀는 사람의 잘못을 전부 파헤치고 그것만 끄집어내고,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정죄의식을 심어주고()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전혀 평안이 없고 불안, 초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자녀의 권세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4) 거짓말쟁이요, 거짓의()입니다.

요 8:44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1)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운명론은 전형적으로 마귀가 주는 거짓된 생각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생각, 인생의 변화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앙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요약하자면, 영원한 이전부터 영원한 뒷날까지 사람과 모든 짐승은 돌고 돌며 바뀌고 바뀐다는 것이다. 즉, 전 세상에서는 짐승이었던 것이 지금 세상에서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지금 세상에서는 사람으로 산다고 해도 다음 세상에서는 어쩌면 짐승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사실 이 윤회사상은 악한 일을 하려는 이들과 착한 일을 하지 않으려는 이들을 권고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의도했던 바와는 다르게 오히려 못 할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인도의 소를 보십시오. 인도인들은 소는 어여뵈 여기고 길러주지만 사람들은 몹시 학대합니다.

사람들이 가난으로 고생하면서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해 구걸을 하더라도, 마음 아파하거나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윤회를 믿는 모든 곳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더 좋은 곳에서 태어나기를 기원하며, 때로는 그를 기르는 일에 대한 어려움과 결혼을 시키는 데 드는 돈을 생각해서 죽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가난하게 살 것이다. 차라리 나는 네가 일찍 죽어서 부귀한 집에 몸을 맡겨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너의 복일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심정은 내 마음속도 아프게 찌른다.

이들은 세상의 어지러운 일을 만나면 전생에 좋지 않은 일을 해서 지금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고 생각하고, 현재 복을 누리면 전생에 덕을 쌓았다고 생각한다.

곧 눈앞에 드러나는 명확한 죄악을 모두 내버려두고 돌아보지 않으며 그것들을 고치거나 바로잡지도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악마의 계책이 아니겠는가?

어떤 곳에 살고 있는 아무개는 나면서부터 말을 할 수 있었는데, 그는 '나는 본래 다른 아무개 집안의 아들이었다. 따라서 이분들은 나의 참된 부모가 아니다. 이분들은 다만 내가 태어나기 위하여 몸을 맡긴 부모일 뿐이다' 라고 말했다.

이는 거짓말 가운데에서도 거짓말이다. 가령 지금의 몸을 낳아준 부모가 참 부모가 아니고, 다만 내가 태어나기 위해서 몸을 맡긴 부모일 뿐이라고 가정해 보자.

윤희설에 따르자면 전생의 육신 앞에는 또 그 전생의 육신이 있을 것이니 전생에서 몸을 낳아준 부모 역시 나의 참 부모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이것은 바로 마귀들이 사람을 꺾어 아버지와 자식이 서로 사랑하고 공경하는 바른 도를 버리게 하는 말뿐이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흐리게 하는 꺾이하고 요사스러운 말이 어찌 윤희의 참된 증거이겠는가?"

5) 마귀는 ()이 있습니다.

계12:3~5 “3하늘에 또 다른 1)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4그 꼬리가 하늘의 별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5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마귀는 여러 뜻이 있습니다.

- ① 사람을 꺾하는 자
- ② 미혹하는 자
- ③ 타락시키려고 하는 자

마귀와 함께 쫓겨난 천사 1/3이 귀신이 된 것입니다. 여러 이단이나 종교에서는 귀신이 죽은 자의 사후영이라고 가르치지만 이것은 사람들을 속여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경배와 섬김을 가로채려는 귀신의 속임수일 뿐입니다.

제사 역시 사실상 조상의 이름으로 귀신이 섬김을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일사불란한 조직 체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역사합니다.

성경만이 마귀의 실체를 폭로하며, 교회만이 마귀와 싸우는 유일한 곳입니다.

엡 6:12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3) 영적 전쟁이란 무엇입니까?

마16:18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 ()인 전쟁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종류의 억압과 공격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요일 3:8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10:10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16:18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은 사탄 왕국의 대문이 교회의 공격을 이기지 못하리라는 말로 교회의 영적인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근본 목적은 어둠의 왕국, 사탄의 왕국의 대문을 깨뜨리면 서 그 안으로 공격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눅 10:17~19 _____

계 12:11~12 _____

요 12:31 _____

(2) () 의 전쟁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사탄이 간섭하고 반대할 때 내면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깨달으면 성질도, 기질과 성품도 바뀝니다.

엡 2:1

하지 말라는 것은 다 재미있다.

개그맨 전유성 씨가 쓴 책의 제목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개그맨다운 제목이지만 굉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먹지 말라는 것은 다 맛이 있다’ ‘보지 말라는 것은 다 매력이 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즐거워야 합니다. 그런데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즐겁지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만 재미가 있습니다.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이 이상하게 맛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무엇인가 묶여서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악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해야 할 일은 참 하기 어려워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은 얼마나 쉽게 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에는 차마 부끄러운 일인데도 ‘재미보러 가자.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보자’는 유혹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유혹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절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절로 선하게 살아집니까? 이것이 우리가 무엇인가에 의하여 종노릇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II. 영적전쟁이 일어나는 장소는?

1) 생각하면서

1989년 루마니아로 비밀리에 복음을 전하러 간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루마니아의 차후세스쿠 독재정권이 뒤흔치는 과정에서 쥐도 모르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현지에 있는 목사님들도, 신자들도 들키면 붙들려서 죽었습니다. 비밀경찰들이 공포 정치를 펴고 있는 그때에 아직 잡히지 않는 선교사님들이 비밀리에 있는 성도의 모임에서 성령님의 강력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루마니아를 뒤덮고 있는 두려움의 영을 제거하라. 두려움의 영을 제거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몇 명뿐이었습니다.

이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루마니아의 관공서 담벼락 앞을 걸으며 조그마한 소리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루마니아에 역사하는 두려움의 영아 물러갈지어다. 두려움의 영은 꺾임을 받을지어다.”라고 기도하기를 몇 년 동안 지속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비밀경찰들의 박해는 더욱 극심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음성은 계속되었기 때문에, 심지어 몇 사람이 비밀리에 순교 당하면서까지 기도의 행진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82년 12월에 루마니아의 개혁신교회 목사인 토퀘스 목사가 비밀경찰에게 가택연금을 당했습니다. 그동안은 비밀경찰들이 워낙 무서웠기에 어느 누구도 그곳에 찾아오거나 얼씬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만큼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두려움이 다 사라진 것처럼 목사님 집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비밀경찰들이 총을 들이대어도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긴다고 선언하고 두려움 없이 맞서기 시작하면서 몇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기도 했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더 모였습니다. 두려움의 영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두려운 영이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박해를 하면 할수록 더 모이기 시작하였고 총 앞에서도 담대해져 갔습니다.

결국 루마니아 군대는 자기 동족에게 더 이상 총부리를 겨눌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비밀경찰도 더 이상 백성을 죽이지 말라고 하며, 그 총고를 동료들에게 겨누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루마니아 경찰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의 영들이 사라지니 죽는 것이 무섭지 않고 세상을 바꾸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위의 글 속에서 느낀 것이나 깨달은 것을 서로 나눠볼까요?

2)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는?

(1) ()입니다.

요13:2

(2) ()입니다.

잠4:23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히12장 15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의 무엇을 조심하라고 했습니까?

마15:17~20 “17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18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19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20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생각과 마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악한 생각이 먼저이고 마음에 견고한 진이 되는 것은 그 후입니다. 생각으로 스치고 떠오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두세 번 계속 같은 생각을 품으면 결국 그 생각이 견고한 진이 됩니다.

* 마음에 굳어진 생각은 그 사람의 태도와 사고방식이 되고 세계관, 가치관이 됩니다.

()에 생긴 견고한 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습관적인 죄
- ② ()과 (), ()
- ③ 열등감 혹은 무거운 분위기

마8:17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짴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 ④ () 마음
- ⑤ 분열, 판단하는 예민함

(3) 우리의 ()입니다.

잠18:21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약1:26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시141:3 “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침이 사람의 입 속에 있을 때는 괜찮지만 입 밖에 나오면 더러워집니다. 이처럼 어떤 생각들은 우리 속에 있을 때는 그것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생각으로는 이렇게 혹은 저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잘못된 생각이라면 다시 기도하면서 바로 잡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일단 입 밖으로 나오면 뱉은 침이 더럽게 느껴지는 것처럼 더럽게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말을 뱉는 데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듣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마귀를 기쁘게 할 수도 있고, 마귀에게 괴로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로 전쟁하는 것입니다.

“죽겠네.”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모였지?”

전부 다 마귀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는 말과 환난 중의 찬양은 마귀에게 쏘는 강한 영적 미사일과 같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와 찬양을 했듯이, 우리가 우리도 입으로 자꾸 시인하고 고백하면 마귀는 지고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입술의 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입술의 고백이 영적인 세력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입술을 통해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입술의 열매는 맺고, 마귀가 원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세상을 이길 권세를 주셨다!” 하며 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시인하면 마귀는 결국 물러갑니다.

삶의 현장에서도 같은 원리를 쓰는 것입니다. 자녀 중에 문제가 있는 아이가 있을 지라도 “너는 하나님이 축복한 아이고 반드시 크게 들어 쓰실거야. 너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성격도 바꿔주실 것이다”라고 축복하며, 그 아이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이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계12:11

3)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1) 싸움의 ()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엡6:12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2) 나 자신이 ()과 치유함을 받아야 합니다.

영적 전쟁을 못하게 하는 방해요소 두 가지는 죄와 내적인 상처입니다. 죄사함의 확신과 치유의 경험이 너무 중요합니다.

요일3:8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마귀는 죄를 통해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 받지 못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면 곧 마귀에게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십자가 사건이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손대지 못하도록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골2장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정말 신나는 말씀입니다. ‘무력화하여’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disarmed’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적군을 사로잡으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다 빼앗습니다. 총도 빼앗고, 칼도 빼앗고, 무기들은 다 빼앗습니다. 심지어 옷까지 벗깁니다. 그러면 적군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이것을 무장해제라고 합니다.

(3)()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3가지가 있습니다.

- ① 정직한 마음을 십자가 앞에서 가지는 것입니다.(시51:10)
- ② 모든 생각을 사로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고후10:3~6)
- ③ 말씀 묵상으로 새로운 생각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수1:8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뉴욕에 사는 한 여학생이 알코올 중독과 마약으로 인해 머리에 이상이 생겨 정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유대인 담당의사는 치료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상태가 좋아지기는커녕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2~3주 후에 장로교의 여선교회에서 봉사하러 갔다가 환자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싶다고 부탁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간곡히 부탁한 끝에 이 여학생에게만 성경을 읽어주도록 허락받았습니다.

봉사자는 날마다 방문하여 한 시간씩 3개월 동안 성경을 읽어 주었고 다른 이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4개월 반쯤 지났는데 반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누워만 있던 환자가 머리를 들기 시작했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5개월 반쯤 되니 대답과 질문도 하며 대화를 나누었고 6개월쯤 되어 완전히 나았습니다. 의사까지 포기한 희망이 없는 정신병자였지만 그저 날마다 말씀을 듣기만 했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4) 하나님께서 주신 ()를 사용해야 합니다.

약4:7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5) 끝까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때 마귀는 물러갑니다.

(6) 세상과 ()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영적인 작은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알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마치 뱀을 쫓아내는 비결과 같습니다.

집안에 들어온 뱀을 쫓아내려면 우선 먹이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뱀은 먹이를 얻기 위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뱀은 다른 집으로 옮겨갑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마귀에게 먹이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의 먹을 것이란,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며 욕심내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마귀의 먹을 것들이 가득하다면, 마귀는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교우 중에 혹시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 모습을 보고 찾아가서

“여보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은 마귀가 아주 좋아하는 일입니다. 회개하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회개하겠습니까? 말하는 사람에게 ‘정죄하는 마음’이라는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나가기는커녕 더 역사합니다.

그러나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교우 중에 문제가 있는 이가 있다면 그를 사랑으로 덮어주고 감싸주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 생각해서 사랑하기로 결정하면, 마귀는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고 떠납니다. “악한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영적으로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7) ()싸움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작은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한번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다음에는 더 쉽게 빠져듭니다.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작은 것에서 이기면 다음에는 성령께서 견고한 성을 차지하기에 죄를 이기가 더 쉽습니다.

이 원리를 깨달으면 영적전쟁은 더 쉬워집니다.

III. 적용(application)

1) 오늘 공부한 것 가운데 가장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나 성구는 어떤 것입니까?

2) 위의 내용을 나 자신의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 써보십시오.

3) 하나님께서는 배운 바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하라고 말씀하십니까?

15. 캄보디아 단기선교 아침 Q.T 및 주일예배

번호	내용	페이지
1.	10월 4일	45
2.	10월 5일	47
3.	10월 6일	49
4.	10월 7일	51
5.	10월 8일	53
6.	10월 9일	55
7.	주일예배 설교	57

1) 단기선교 아침예배 (10월 4일)

인도:

기도:

찬송/ 425장

말씀/ 베드로전서 1:1~9

설교/ 산소망으로 복음을 전파하자

M E M O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빗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2.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3.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4.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1:1~9

- 1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 2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 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 4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 5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 6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 7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 8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 9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M E M O

2) 단기선교 아침예배 (10월 5일)

인도:

기도:

찬송/ 430장

말씀/ 베드로전서 1:10~21

설교/ 부르심을 받은 대로 복음을 전파하자

M E M O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1.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후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2.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 길로 가겠네
3.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4. 옛 선지자 에녹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1:10~21

- 10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 11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 12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 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 13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 14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 15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 16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 17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 18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 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 19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 20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 21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M E M O

3) 단기선교 아침예배 (10월 6일)

인도:

기도:

찬송/ 436장

말씀/ 베드로전서 2:1~10

설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전파하자

M E M O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1.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 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 같이 빛난다
<후렴>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2.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3.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4.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편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2:1~10

- 1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2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3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 4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5 너희도 산 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 6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잇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 7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 8 또한 부딪치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 9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 10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M E M O

4) 단기선교 아침예배 (10월 7일)

인도:

기도:

찬송/ 454장

말씀/ 베드로전서 2:16~25

설교/ 오직 종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파하라

M E M O

454장 주와 같이 되기를

1.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2.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 주소서
맘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맘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3.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2:16~25

- 16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17 못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18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19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20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21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22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23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24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25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M E M O

5) 단기선교 아침예배 (10월 8일)

인도:

기도:

찬송/ 265장

말씀/ 베드로전서 3:1~12

설교/ 정결한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라

M E M O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1.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후렴>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2.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3.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 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4.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3:1~12

- 1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2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 3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4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 5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 6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 7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 8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 9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 10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 11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 12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어지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M E M O

6) 단기선교 아침예배 (10월 9일)

인도:

기도:

찬송/ 338장

말씀/ 베드로전서 4:12~19

설교/ 기쁨으로 고난을 이길 때 복음은 증거된다

M E M O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1.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2.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 베개 베고 잠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3.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 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4.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길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4:12~19

- 12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 13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 14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 15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 16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 17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 18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 19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M E M O

7) 주일예배 설교

말씀/ 베드로전서 5:8~14

로마서 8:32~39

설교/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증거하라

M E M O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5:8~14

- 8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앎이라
10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11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12 내가 진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13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14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로마서 8:32~39

- 32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3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4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35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6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39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M E M O

M E M O

M E M O

16. 캄보디아에서 부를 찬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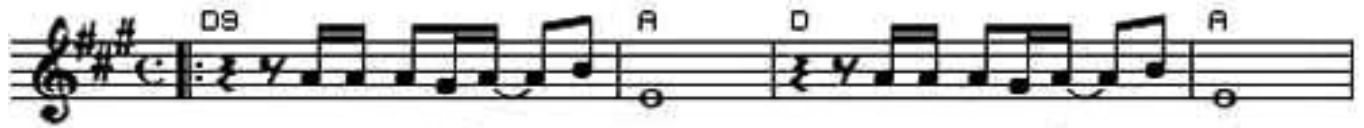
번호	내용	페이지
1.	은혜	62
2.	모든 상황 속에서	63
3.	하나님의 사랑을	64
4.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65
5.	가서 제자 삼으라	66
6.	아무 것도 두려워 말라	67

1) 은혜

손경민



2)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속 - 에 서
주의 얼굴구 - 할 때

주를 찬양할 - 지 라
주의 영을부 - 으 사



주는 너의큰 - 상 급
크신 사랑안 - 에 서

큰도 - 움이 - 시라 내
주를보게하 - 소서



영혼이-확정되고-확정되었 -사 오-니 - 믿 음의눈들-어 - - 주를



바라봄- -니다 내 영혼이-확정되고-확정되었 -사 오-니 - 믿



음의눈들- 어 - - 주를 바라봄-니 다 주를



바라볼- 때 주의나-라 이미임 - 했 네 그 - 영원한 - 나라 -



보게하 - 소 서 - - 내

3) 하나님의 사랑을

(원제 : 주만 바라볼찌라)

박성호



하나 님 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 님 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님 계신-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 님 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네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 하나



자 너 상 으셨 네 하나 님 사 랑 의 눈 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고 하나 님 인 자 한 귀로써-



언제 내 너에게 기쁨 이시 니 어두 움 에 밝은 빛 을 비추 주시고



네의 작은 선 응 에 도 응 답 하 시 니 너 는 어느 곳 에 있 - 든 지 주 를 향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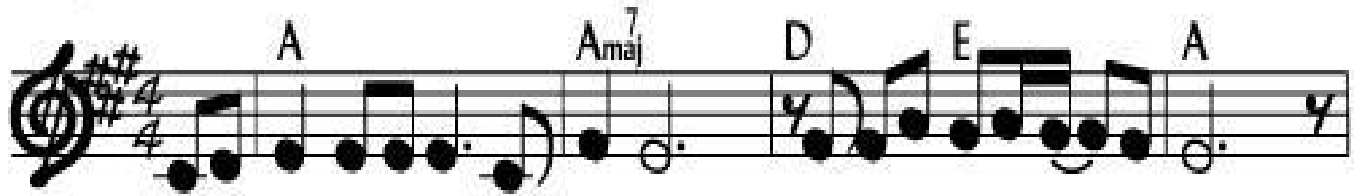


주만 바라 볼 찌 라 하나 라 주만 바 라 볼 찌 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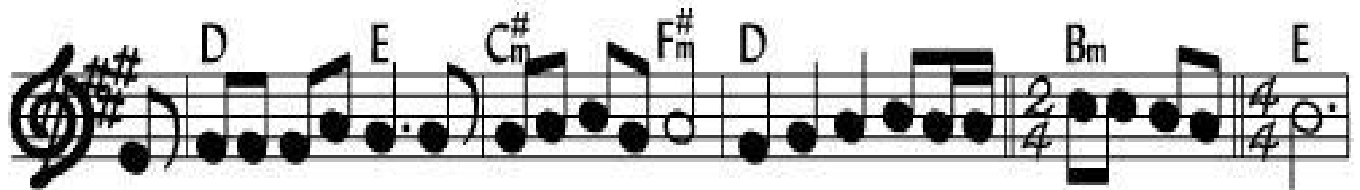
4)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원제 : 비전 / Vi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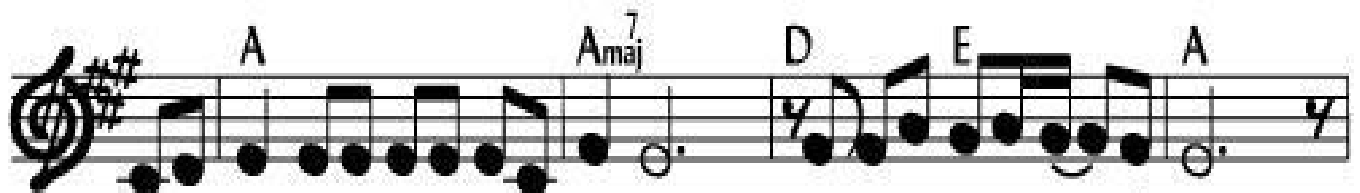
고형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 내님의 사랑 그 아들로 주셨네 그 의피로 우린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 성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 린양계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 린양계 있도다

Copyright (C) 고형원 . Used by Permission.

5) 가서 제자삼으라

— * 마28:16 ~ • 최용덕 曲 李詩 詞 * —

A E A D A

갈 - 릴 리 마 을 그 숲 속 에서 -
 자 - 금 도 우리 주 찾 아 오 사 -

A D E E7

주님 그 열 한 제자 다 시 만나시사 -
 어두 워 져 가 는저 세 상 바라보며 -

A D E E7

마지 막 그들에게 부락 하 시기 를
 마지 막 우리에게 부락 하 시기 를

A E A D A

너희 들은 - 가라 저 세 상으 로

A A7 D

가 서 제 자 삼으 라 세 상 망 은 사 람 들 을

E A E(G)

세 상 모 든 영 혼이 네 게 달 렸 나 니

(E) A A7 D

가 서 제 자 삼으 라 나 외 길 을 가르치 라

E E7 A D A

내 가 너 희와 항상 함 께 하 - 리 라

6)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현석주



아무-것 도 두려워말라 주나의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마라 - 겁내지마라 - 주님나를 지켜주시네 -



내 맘이힘에겨워 지칠지라도 주님나를 지켜주시 네



세 상의힘한풍과 몰아칠때도 주님나를 지켜주시 네 -



주 님은 나의 산 성 주 님은 나의 요 새



주 님은 나의 소 망 나의힘이되신여호와 와

17. 간단한 복음 전하기 - 한국어 전도지



당신은
언제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행복한 시간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람은 본래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_ 창세기 1장 27절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므로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결과 : 불안, 두려움 / 사망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_ 로마서 3장 23절
죄의 삯은 사망이요... _ 로마서 6장 23절



하나님께서서는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_ 요한일서 4장 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_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모든 죄 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삼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선물 : 평안 / 영생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_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_ 요한복음 10장 10절



당신은 참 평안과 영생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서는 지금 이 시간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참 평안과 영생을 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_ 요한복음 3장 16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_ 요한복음 1장 12절



지금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하셔야 합니다.
최악 된 세상에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다가
죽은 이후에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영접하여 참 평안과 영생을 얻을 것인지...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_요한계시록 3장 20절



참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와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십시오.



18. 간단한 복음 전하기 – 크메르어 전도지



តើពេលណាដែលអ្នកគិតថា មានសុភមង្គលបំផុត ?
តើអ្នកគិតថាសុភមង្គលនោះស្ថិតស្ថេរនៅជាមួយអ្នកជាដរាបដែរឬទេ ?



ព្រះបង្កើតមនុស្សលោកមកដើម្បីរស់នៅយ៉ាងសុខសាន្តជាមួយនឹងទ្រង់។

តាមរយៈគម្ពីរលោកុប្បត្តិ ១:២៧ បានចែងថា
ទ្រង់ក៏បង្កើតមនុស្សឲ្យជួបរូបអង្គទ្រង់ គឺបានបង្កើតគេឲ្យចំនឹងរូបអង្គទ្រង់នោះឯង
ក៏បង្កើតគេឡើងជាប្រុសជាស្រី។



ប៉ុន្តែមនុស្សមិនបានស្តាប់បង្គាប់ព្រះ ហើយក៏ប្រព្រឹត្តបាបទាស់នឹងទ្រង់
ហើយក៏បានបែរចេញពីទ្រង់។

លទ្ធផល=កង្វល់+ភាពភ័យខ្លាច / សេចក្តីស្លាប់

រ៉ូម ៣:២៣ មានបន្ទូលថា

ពីព្រោះគ្រប់គ្នាបានធ្វើបាបហើយខ្វះមិនដល់សិរីល្អនៃព្រះ។

រ៉ូម ៦:២៣ មានបន្ទូលថា

ដ្បិតឈ្នួលរបស់អំពើបាប នោះជាសេចក្តីស្លាប់ តែអំណោយទាននៃព្រះវិញ
គឺជាជីវិតជីនៅអស់កល្បជានិច្ច ដោយព្រះគ្រីស្ទយេស៊ូវ ជាព្រះអម្ចាស់នៃយើងរាល់គ្នា។



តែឯព្រះទ្រង់មានពេញដោយសេចក្តីមេត្តាករុណាដល់
មនុស្សដែលមានពេញដោយអំពើបាប ទ្រង់ក៏បានចាត់ព្រះយេស៊ូវគ្រីស្ទ
ឲ្យមកក្នុងលោកឃុំទុកជាថ្លៃលោះបាបដល់យើងរាល់គ្នាវិញ។

១ យ៉ូហាន ៤:៨ មានបន្ទូលថា

តែអ្នកណាដែលគ្មានសេចក្តីស្រឡាញ់ នោះមិនស្គាល់ព្រះវិញ ពីព្រោះព្រះទ្រង់ជាសេចក្តីស្រឡាញ់
នោះឯង។

ម៉ាកុស ១០: ៤៥ មានបន្ទូលថា

ដ្បិតកូនមនុស្សក៏បានមក មិនមែនឲ្យគេបំរើដែរ គឺដើម្បីនឹងបំរើគេវិញ ហើយនិងឲ្យជីវិតខ្លួនទុកជា
ថ្លៃលោះមនុស្សជាច្រើនផង។



ដើម្បីបង់ថ្លៃលោះបាបរបស់យើងរាល់គ្នាព្រះយេស៊ូវបានសុគតនៅលើឈើឆ្កាង
ហើយ៣ថ្ងៃក្រោយមក ទ្រង់ក៏មានព្រះជន្មរស់ឡើងវិញ។
ហើយទ្រង់សព្វព្រះទ័យនឹងប្រទានដល់យើង
នូវកាដូពិសេសពីរ

គឺ សេចក្តីសុខសាន្ត និង ជីវិតអស់កល្បជានិច្ច។

យ៉ូហាន ១៤:២៧ មានបន្ទូលថា
ខ្ញុំទុកសេចក្តីសុខនៅនឹងអ្នករាល់គ្នា គឺខ្ញុំឲ្យសេចក្តីសុខសាន្តរបស់ខ្ញុំដល់អ្នករាល់គ្នា ហើយដែលខ្ញុំឲ្យ
នោះមិនមែនដូចជាលោកីយ៍ឲ្យទេ កុំឲ្យចិត្តអ្នករាល់គ្នាថប់បារម្ភ ឬភ័យឡើយ។
យ៉ូហាន ១០:១០ មានបន្ទូលថា
ខ្ញុំបានមកដើម្បីឲ្យវា(អ្នក)រាល់គ្នាមានជីវិត ហើយឲ្យមានជីវិតនោះពេញបរិបូរផង។



តើអ្នកមិនចង់ទទួលបានសន្តិភាពដ៏ពិត និង ជីវិតអស់កល្បជានិច្ចទេឬអី?
ព្រះជាម្ចាស់សព្វព្រះទ័យឲ្យអ្នកទទួលបានព្រះយេស៊ូវគ្រីស្ទមក
គង់ក្នុងចិត្តអ្នក ដូច្នេះអ្នកនឹងអាចទទួលបានកាដូពិសេស គឺជីវិតអស់កល្បជានិច្ច
និងការរស់នៅប្រកបដោយសុខសន្តិភាព។

យ៉ូហាន ៣:១៦ មានបន្ទូលថា
ដ្បិតព្រះទ្រង់ស្រឡាញ់មនុស្សលោកដល់ម្ល៉េះ បានជាទ្រង់ប្រទានព្រះរាជបុត្រាទ្រង់តែ១ ដើម្បីឲ្យអ្នកណា
ដែលជឿដល់ព្រះរាជបុត្រានោះ មិនត្រូវវិនាសឡើយ គឺឲ្យមានជីវិតអស់កល្បជានិច្ចវិញ។
យ៉ូហាន ១:១២ មានបន្ទូលថា
ប៉ុន្តែអស់អ្នកណាដែលទទួលទ្រង់ គឺអស់អ្នកដែលជឿដល់ព្រះនាមទ្រង់ នោះទ្រង់បានប្រទានអំណាច
ឲ្យបានត្រឡប់ជាកូនព្រះ។



ខណៈពេលនេះ ព្រះយេស៊ូវកំពុងតែគោរពចិត្តរបស់អ្នក។
 ពេលនេះជាពេលដែលអ្នកត្រូវការធ្វើការសម្រេចចិត្ត
 គឺការរស់នៅក្នុងលោកីយ៍ដែលពេញដោយទុក្ខព្រួយនិងភាពភ័យខ្លាច
 ហើយក្រោយពីស្លាប់ទៅត្រូវរងទុក្ខវេទនាជាដរាបអស់កល្បនៅក្នុងឋាននរក
 ឬក៏ទទួលយកព្រះយេស៊ូវបានទទួលនូវសន្តិភាពដ៏ពិត និង ជីវិតអស់កល្បជានិច្ច។
 តើអ្នកទទួលយកព្រះយេស៊ូវទុកជាព្រះអម្ចាស់របស់អ្នកទេ ?

វិវរណៈ ៣:២០ មានបន្ទូលថា
 មើល អញឈរនៅមាត់ទ្វារទាំងនោះ បើអ្នកណាឮសំឡេងអញ ហើយបើកទ្វារឲ្យ នោះអញនឹងចូលទៅក្នុងអ្នកនោះ
 អញនឹងបរិភោគជាមួយនឹងអ្នកនោះ ហើយអ្នកនោះជាមួយនឹងអញដែរ។



អ្នកបានធ្វើការសម្រេចចិត្តដ៏សំខាន់ណាស់។
 សូមអធិស្ឋានដូចតទៅនេះ៖
 ឱព្រះវរបិតាអើយ ទូលបង្គំជាមនុស្សមានបាប។
 សូមអត់ទោសដល់ទូលបង្គំដោយការកែប្រែចិត្តរបស់ទូលបង្គំផងដែរ។
 ខ្ញុំជឿថាដោយសារតែអំពើបាបរបស់ទូលបង្គំ ព្រះយេស៊ូវបានសុគតនៅលើឈើឆ្កាង
 ហើយទ្រង់ក៏បានមានព្រះជន្មរស់ឡើងវិញ។
 នាពេលនេះ សូមយាងចូលមកគង់ក្នុងបង្គំចិត្តរបស់ទូលបង្គំផងដែរ។
 សូមទ្រង់ក្លាយជាព្រះសង្គ្រោះរបស់ទូលបង្គំផងដែរ។
 ទូលបង្គំអធិស្ឋានក្នុងព្រះនាមព្រះអម្ចាស់ ព្រះយេស៊ូវគ្រីស្ទ។
 អាម៉ែន!



ឥឡូវនេះ នៅពេលដែលអ្នកបានទទួលព្រះយេស៊ូវគ្រីស្ទមក
ក្នុងចិត្តរបស់អ្នកហើយ អ្នកបានក្លាយជាកូនរបស់ព្រះ។
សូមចេញទៅដើម្បីនឹងថ្វាយបង្គំព្រះនៅព្រះវិហារដែលជិតនិងផ្ទះរបស់អ្នក។
ហើយសូមឲ្យជីវិតរបស់អ្នកមានសុភមង្គលដោយការស្តាប់ព្រះបន្ទូលនៃព្រះ
និងការអធិស្ឋានផងដែរ។
សូមព្រះប្រទានពរដោយសេចក្តីស្រឡាញ់ដ៏បរិបូរណ៍របស់ទ្រង់ផងដែរ។

